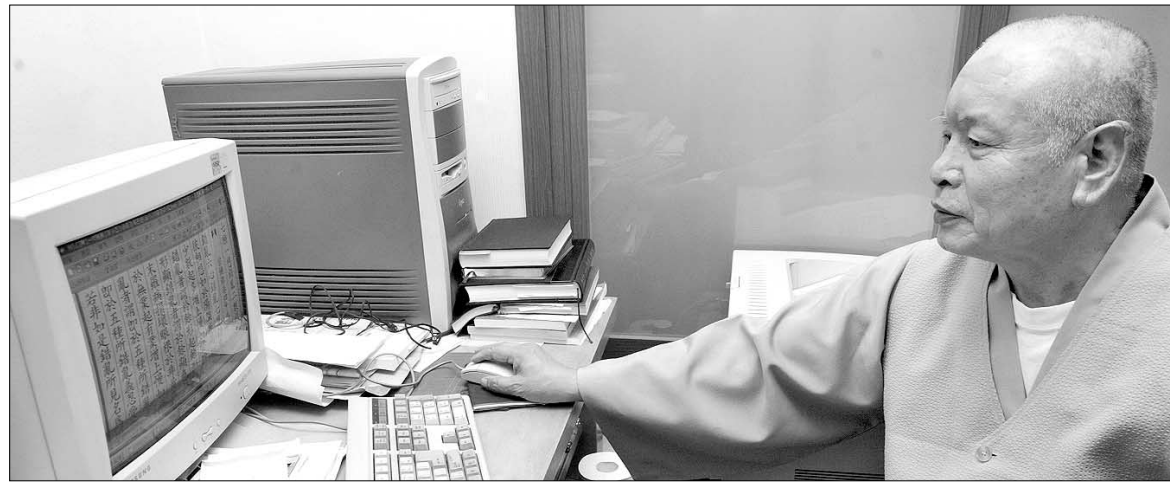


16년째 강원 교재 교정 작업 몰두

수성 스님(대구 정토사 주지)

세로 편집·글자 크기 등
옛것과 똑같이 입력
제작도 전통 방식으로
현재 3만 6천여장의
고려대장경 교정 마쳐



16년째 강원 교재 교정작업을 하고 있는 대구 정토사 주지 수성 스님. 스님은 컴퓨터를 이용해 옛 목판본 경전을 고스란히 옮기며 한자 한자 교정하고 있다.

“인쇄술이 고도로 발달한 지금도 강원에서는 옛 목판본 인경한 것을 복사해 교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오자도 많고 목판본의 마모로 글자도 제대로 알아보기 어려워 확인스님들이 공부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16년째 강원 교재 교정작업에 몰두하고 있는 수성 스님(대구 정토사 주지).

수익성도 없고 한 두 해 작업으로 될 일도 아니어서 아무도 나서지 않는 일이지만 “누가 해도 해야 하는 일”이라며 16년째 강원 교재 교정 작업을 하고 있다.

스님은 강원에서 공부할 때 글자가 잘 보이지 않는 교재를 보면서 많이 힘들었던 기억 때문에 처음에는 붓글씨를 익혀 직접 쓰려고 했다. 그러나 컴퓨터가 상용화되면서 컴퓨터를 이용하게 됐다.

〈반야심경〉〈천수경〉부터 입력하기 시작한 작업. 스님은 세로쓰기가 되지 않는 ‘한글’ 프로그램을 활용한다. 그러나 스님의 ‘작업 솜씨’가 얼마나 뛰어난지 예전 책과 똑같은 세로 쓰기의 모양

으로 교재를 만들고 있다. 페이지며, 글자크기까지 심지어 테두리선까지 똑같이 만들어 옛것과 비교하기 쉽게 입력하고 있다.

스님은 지금까지 <능엄경>(10권짜리 3권의 제본으로 만들었음) <대승기신론>(4권), <원각경>(6권), <금강경오가해>(상하)를 책으로 만들었다. <능엄경>과 <금강경오가해>는 통도사 목판본으로 만든 것이며, <대승기신론>과 <원각경>은 하동 쌍계사 목판본으로 만든 것이다. 현재 서을 봉선사, 봉녕사, 동학사, 순천 선암사에서 이 책을 확인스님들의 교재로 활용하고 있다. 책은 각 200부씩을 만들었는데, 오래 보존할 수 있도록 한지에 한 장 한 장 인쇄하고, 제작도 옛기술을 이용한 수작업으로 만들었다.

그래서 페이지며, 글자크기며 모양이 예전 목판본 인쇄본과 똑 같다.

스님은 동국대 역경원에서 만든 <고려대장경영인본> 축소판 교정 작업도 시작했다. 48권 중 3권에 대한 교정 작업과 재판입력 작업을 마쳤다. 그러나 불사비가 없어 아직 책으로 만들지는 못한 상황이다.

기본으로 만들어 <신편 고려대장경>이라고 제목을 붙여냈는데, 역시 <고려대장경영인본> 축소판과 똑같은 크기와 모양으로 만들었다.

지금까지 이 모든 작업을 사비로 충당해온 스님은 어느 정도 재원이 마련되면 그 돈을 털어 책으로 만들 예정이다.

이미 장경연구소에서 판대장경 전신화사업이 되어 있다지만 스님이 아닌 일반인들이 자료만 입력한 상태에서 스님이 찾고 찾아보기도 어렵다는 것이 스님의 주장이다. 스님은 경의 내용도 알고 한문도 잘 아는 사람이 교정을 봐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수성 스님은 옛 목판본과 똑같은 모양으로 입

력해 언제든 쉽게 원본과 대조해 볼 수 있도록 만들어 편리하다. 스님은 현재 3만 6천장 정도의 <고려대장경> 목판본 교정 작업을 마친 상태다. 목판본 양면에 새겨져있으니 책으로 보면 7만 장 분량의 교정 작업을 마친 셈이다. 스님은 또 봉선사 조실 월운 스님이 국립중앙도서관에서 구해온 <대장일람집>도 교정정리하고 있다. 이는 일본 목판본을 인경한 것으로 우리나라에 알려지지 않았지만 스님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필독서다. 총 578장으로 되어 있는데 대장경을 일관한 후 축약한 ‘해례서’라고 할 수 있다. 교정 입력 작업이 거의 끝난 상태인데, 월운 스님의 감수를 거쳐 곧 책으로 제작될 예정이다.

세수 68세 법랍 50세의 수성 스님은 불영사로 출가해 자은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와 비구계를 수지하고 해인사 강원을 나왔다. (053)761-8676 배지선 기자

지역불교현장을 찾아서

소리로 마음의 눈 밝혀요

맑고향기롭게 소리봉사 모임

11월 6일 저녁 7시, 대구 수성구 맑고향기롭게 대구법당 한 칸에 마련된 작은 녹음실에 불이 켜졌다. 불교도서녹음 봉사단체인 ‘소리봉사모임’ 회원들이 불교도서녹음을 시작한 것이다. 임선지(30·노동법률상담)팀장이 먼저 녹음실에 들어 법정 스님의 <무소유>를 녹음하고, 김영미, 황분택씨가 이를 지켜보며 컴퓨터를 조작하고 잘못 녹음되는 곳이 있는지 살폈다. 녹음실에서 흘러나오는 소리가 편안하면서도 단정하다. 일반인이 듣기에 전혀 나쁘지 않은데 임 팀장은 한 문장을 세 번 네 번 반복 녹음했다. “소리녹음, 정말

“몸 풀고, 입 풀고, 혀 풀고” 정성을 다해 시작하는 이들의 녹음은 밤9시~10시를 넘기며 이어졌다.

소리봉사모임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기독교계 녹음도서가 주를 이루는 반면 불교계 녹음도서는 전체 녹음도서의 5%가 채 안 되는 현실이 안타까웠던 김은영(초대팀장)씨의 제안에 따라 1999년 10월 결성됐다.

처음 7명의 회원으로 시작한 소리봉사모임은 맑고향기롭게 대구모임에서 발간하는 <찾마음> 회보를 녹음해 대광명인불자회와 운전전불자연합회를 전담해 큰 호응을 얻고 지난해에는 <돈오입도요문론> <고봉화상선언어록> <불교 선수행의 핵심> <서장공부> 등의 불교도서 녹음도 했다.



99년 결성 후 회보·경전 등 불교도서 녹음

한 평 남짓 녹음실서 최고의 목소리 위해 진력

재밌어요. 다만 글을 소리로 바꾸는 과정에서 스님의 글이 왜곡 없이 잘 전달될 수 있기를 걱정할 뿐입니다.”

김영미(42)씨도 속내를 보였다. 법정 스님의 글이 좋아 스님의 책을 녹음하는 소리봉사모임에 가입했다는 김씨는 시각장애인들이 스님의 글을 전혀 볼 수 없다는 사실이 안타까워 뜻을 빼고 내용이라도 공유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녹음을 시작했다.

“허 짧은 소리 나는 것 같지 않아요?” 녹음실에 들어가기 전 환복면(52)씨가 다른 회원들에게 마지막 조언을 구했다. 좀더 매끄럽게 녹음하고픈 마음에서다.

맑고 향기롭게 법당에 와서 설거지 봉사부터 시작해 이곳 녹음실까지 들어와다며 자랑스러워하는 황씨는 처음 녹음을 시작하면서 입이 다 할었다. 50대의 언문이 묻어나는 황씨의 목소리엔 독특한 매력이 풍기는데 황씨는 그저 소리가 너무 크지는 않은지 울리는 않은지 혹은 끝을 길게 빼는 것은 아닌지 수많은 질문을 던지며 단말했다.

그러나 지난 8월 김은영 초대 팀장이 개인 사정으로 활동을 중단하고 다른 회원들마저 빠지면서 해체 위기를 맞았다. 다시 회원을 모집해 지난9월 재결성을 갖고 매주 월요일 모임을 갖고 있지만 여전히 위기다.

현재 녹음봉사회원은 3명, 편집회원을 포함해도 5명이 전부인데다 신입회원을 이끄는 지도자가 없다는 것이 큰 문제다. 지역우일의 불교도서녹음봉사단체라는 것을 잘 아는 회원들은 한국 방송공사에서 나온 아나운서 발음 낭독교육이펙트를 통해 스스로 발음발성법을 익히며 모임을 어렵게 이어가고 있다.

임선지 팀장은 “어려운 상황에서 제작된 불교도서녹음이 시각장애인들과 어르신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뿐”이라고 밝혔다. 배지선 기자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구지사 : (053)768-8008
영주지사 : (054)634-3429

역대 조사 진영 17점 공개 예천 용문사 성보유물관 개관



경북 예천 용문사주지 청안가 11월 5일 성보유물관 낙성식을 봉행했다. 지하1층 지상1층 연면적 250평 규모의

목조한식구조로 건립된 성보유물관은 전통사찰과 어울리는 외관을 자랑하며 처음 일반에 공개됐다.

용문사 성보유물관은 이날 개관을 기념해 용문사 초창주 두운선사 진영을 비롯한 청허 휴정선사 진영 등 용문사가 소장하고 있는 역대 조사 진영 17점을 모두 공개했다. 또 팔상탱(1709, 보물 제1330호)과 천불탱, 시왕탱, 사자탱 등 불화와 불상 공예품, 서지류 등 용문사 소장 유물 192점 중 80여점을 전시했다. 특히 대장전과 같은 단청과 내포를 갖춘 실내로 조성된 제2전시실에는 윤장대(회신식 불경보관대)가 실물과 같은 비율로 복원돼 모든 관람객이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

배지선 기자

‘추억의 경주 신혼여행’ 유적지 답사 및 한방체험 등

“자, 날 좀 봐요~ 어디, 삼강마마 같은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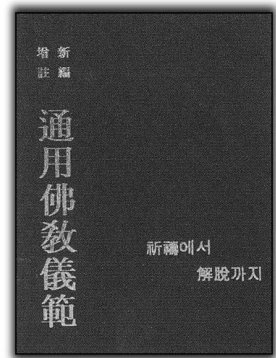
11월 8일, 옛 신라의 궁궐터 경주 안압지에 ‘왕’과 ‘왕비’가 남시었다. 신라문화원(이사장 진철이) 7일부터 9일까지 2박3일간 실시하는 ‘추억의 경주 신혼여행’ 시범관광에 나선 참가자들이 왕과 왕비 옷을 입고 기념촬영에 나선 것. 대례복에 금관을 쓰고 금목걸이까지 착용하니 TV사극에서나 보던 왕과 왕비의 모습인데, “여봐라” 호령하고 팔을 뻗는 모습이 어설피기만 하고 터져 나오는 웃음은 참을 길이

없다. 신라문화원이 지난 10월에 이어 두 번째로 시행하는 이번 시범관광에는 60세 이상 노부부 9쌍이 참가했다.

이들은 2박3일간 여행가이드 2명과 간호사 1명 등 진행요원 5명의 안내를 받으며 경주의 추억을 되살리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즐겼다. 경주박물관과 천마총 불국사 등을 둘러보며 경주역사문화에 대한 해설도 들었다.

‘추억의 경주신혼여행’은 신라문화원이 ‘2007 경상북도 방문의 해’를 맞아 경상북도로부터 수탁받아 60~70년대 각광받던 신혼여행지였던 경주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해 고령화 사회에 적합하도록 기획 개발한 고품격 여행상품이다. (054)774-1950 배지선 기자

알기쉬운 佛敎 儀式 新刊 通用佛敎儀範 案内



귀의삼보하하고 불교란 어떤종교인가? 깨달음의 종교이다. 불교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입교에 의한 윤회를 믿고 보살행을 실천하여 성불하기를 염원하는 종교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불제자로서 의식법전의 순서의 어려움이 많아 수행하는데 우왕좌왕 하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라는 것을 실감하고 모든 불교의식집을 참고로 하여 의식을 간편하게 편집하였습니다. 의식이란 보는 이에 따라 甲論乙駁이 있겠으나 수행 초심자가 어디서 부터 시작해야 하는지 막막할 때 이 의식집을 펴면 편 페이지를 찾지 아니하고 모든 의식을 집전할 수 있도록 편집되어 있습니다.

▶ 총 1099페이지 법보가 ₩45,000

■ 통용불교의범 특징

불보살 모든 불공의식은 불공의식 대로 편집되었으며 제목만 찾으면 모든 불공을 모실 수 있는 것이 이 책의 특징인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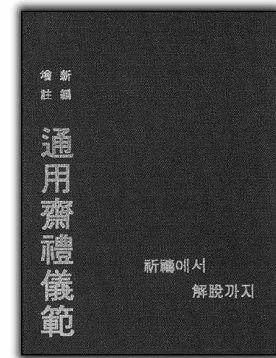
- 제1장 승주편
- 제2장 예경편
- 제3장 전각예경편
- 제4장 불공편
- 제5장 모든법회
- 제6장 방생
- 제7장 제불보살탱단의식
- 제8장 제불보살 파발의식
- 제8장 점안편
- 제9장 이운편
- 제10장 수계편
- 제11장 고사편



編·著者 法眞 辛承道

대한민국 불교 교단에 계는 모든 스님들께 소승 법전이 합장하고 고개 숙여 인사를 올립니다. 소승이 2년동안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2권의 불교의식집을 출간하여 모시오니 사용해 보시고 잘못된 부분은 지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무 아래반야 바라밀

알기쉬운 齋禮 儀範 新刊 通用齋禮儀範 案内



천지간 만물중에서 유인이 최귀하고 유 만물중에서 유인이 가장最貴 하니 사람이 있으면 예(禮)가 있고 예(禮)가 있으면 의식(儀式)이 필요한 것입니다. 불교의 1700년 역사속에 祖師님께 집필하신 의식집이야 말로 참으로 귀하고 완벽한 의식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시대의 변화에 따라 한문으로 된 의식집을 가지고는 어느 것을 먼저하고 어느 것을 뒤에 하는지 순서를 몰라서 우왕좌왕하는 때가 비일비재(非一非再)입니다. 또한 매장문화에서 화장문화로 빠르게 변화가는 오늘날의 현실 속에서 제례의식을 현실에 맞도록 모든 불교의식집을 토대로하여 초보자라 하더라도 집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총 1180페이지 법보가 ₩45,000

- 제1장 시식편
- 제2장 장의편
- 제3장 다비편
- 제4장 四十九齋
- 제5장 재공편
- 제6장 기제사
- 제7장 靈魂結婚壇

■ 주문처 : 호국불교효예중 총무원 출판부 ■ 발행처 : 도서출판 도 승 ■ 편·저자 : 법왕불교대학장 신 법진 합장

☎ 02) 963-0607, H.P:017-361-1131 ☎ 043) 264-3008, H.P:011-9607-2199 주소 :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2동 421-3번지 ■ 국민은행 : 027701-04-060958 ■ 우체국 : 013409-01-001220 예금주 : 호국불교효예중 총무원